

“퇴근시간엔 중랑구까지도 1시간”... 9호선 연장에 미래 달려

3기 신도시를 가다

⑥ 남양주 왕숙1·2지구

서울 이동시 버스·자차 주로 이용 GTX-B 신설시 서울역까지 20분 “경의중앙선만으로 수요 감당 불가”



지난 18일 방문한 경기도 남양주 왕숙1지구 일대에는 비닐하우스와 민가, 물류창고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다.



경기도 남양주 왕숙1지구 주변에 흐르고 있는 사릉천.



경기도 남양주 왕숙1지구에 걸린 현수막. /정연우 기자

“지하철 9호선 연장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다. 9호선이 들어오지 않으면 신도시 입주민 수요와 겹쳐 이 일대는 교통난을 겪을 것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왕숙2지구 인근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A씨의 말이다. 그는 이어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오후6시 이후면 인근 도로는 차가 막혀 가장 가까운 중랑구까지 가는데 1시간 가까이 걸린다”고 했다.

서울에서 왕숙1·2지구를 가려면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1지구는 경춘선 사릉역, 2지구는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근처에 있지만 역세권은 아니다. 중개업자의 말처럼 왕숙지구를 포함한 남양주시민들의 시선은 지하철 9호선 연장 발표에 집중돼 있었다.

◆지하철 9호선 연장, 연말 발표

지난 18일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20여분 만에 왕숙1지구에 도착했다.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곳답게 비닐하우스 농

가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다. 이외에는 크고 작은 물류창고와 공장, 민가가 자리했다. 인근에는 사릉천이 흐르고 있고 근처에는 별내신도시가 있다.

현재 1지구는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B(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 신설이 계획됐다. GTX-B노선은 남양주 마석과 서울역, 인천 송도 등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이다. 역이 세워지면 남양주 마석에서 서울역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다.

버스정류장에서 내려 왕숙1지구 일대를 탐방했다. 왕숙1지구 입구에는 기존 주민들이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다수 걸려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1지구와 2지구는 다음 달 토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비닐하우스 농장주인 B씨(65)는 “혈값에 보상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불안하다”며 “다른 곳에 정착을 해도 농사를 이어갈 수 있을지 답답할 수 없는 상

황인데 적절한 금액으로 토지 보상이 이뤄지길 바랄 뿐이다”라고 토로했다.

버스를 타고 왕숙2지구로 자리를 옮겼다. 이곳은 남양주 다산신도시 근처에 자리하고 있었다. 인근에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버스로 3분 거리에 있어 1지구 보다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 보였다. 현재 왕숙2지구는 왕숙역(가칭) 신설이 계획됐다.

왕숙1·2지구의 남은 과제는 지하철 9호선 연장이다. GTX-B노선과 경의중앙선 만으로는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다. 남양주시는 지난 6월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하남시, 서울 강동구, LH와 9호선 연장사업 적극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관계자는 “왕숙지구 내 지하철 9호선 연장과 관련해 올해 연말 3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심의를

거친 뒤 확정 후 발표할 계획”이라며 “세부 노선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전했다.

◆남양주 집값 고공행진, 2배 ‘상승’

3기 신도시 호재와 교통망 확보로 남양주시 아파트 값은 고공행진을 기록 중이다. 현지 중개업자는 “별내신도시와 다산신도시의 아파트 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며 “다산 신도시 전용면적 84㎡가 현재 10억원 가까이 시세를 형성하는데 개발 발표 전에 비해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랐다”라고 전했다.

남양주의 주요 아파트단지를 살펴보면 다산e편한세상자이(전용면적 74.88㎡)는 8억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면적형은 지난 9월 7억68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전세는 전용면적 84.88㎡가 5억6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8월 보증금 5억원에 계약된 후 호가 6000만원이 올랐다. 다산아이파크는 전용면적 84.95㎡가 9억1500만원에 매

물이 나왔다. 지난 7월 8억4000만원에 거래된 이후 호가 6000만원이 넘게 오른 셈이다.

별내동의 경우 남양주별내대입삼(전용면적 128.29㎡)이 9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 면적형은 지난 8월 8억7400만원, 9월 9억원에 거래되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전세는 전용면적 116.50㎡가 6억8000만원에 물건이 나왔다. 이 면적형은 지난 5월 보증금 4억3000만원에 계약된 후 호가만 2억5000만원에 올랐다.

한편 왕숙1·2지구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한다. 1지구는 남양주시 진접읍과 진건읍 일원 888만 9780㎡에 들어서며 주택은 5만3300가구, 2지구는 일패동, 이패동 일원 244만 7495㎡ 규모며 1만2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사전청약은 오는 2021년 9~10월 진행된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미르 IP 통해 국내 대표 게임사 도약할 것”

지스타 컵·이벤트·컨퍼런스 등 불거리 풍성



위메이드

지스타 2020 메인스폰서 참가 장현국 대표, 미르4 자신감 표출

“올해는 위메이드가 20년이 되는 해다. 향후 20년 내에는 미르 IP에 걸맞는 회사가 되는 것이 목표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19일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2020’ 개막을 앞두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출시를 앞둔 ‘미르4’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이같이 밝혔다.

위메이드는 이번 지스타2020의 메인스폰서로 참가한다.

장 대표는 “미르 IP를 통해 엔씨소프트 버금가는 기업가치를 만들어내겠다는 목표다. 미르 IP는 매년 중국에서 9조원의 매출을 벌어들이고 있는 위메이드의 대표 IP다.”

특히 이날 정식 출시를 앞둔 미르4는 지난 9월 사전예약 시작 이후 두 달 만에 300만 참가자를 달성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는 미르4에 대해 “순위는 1등을 하고 싶다”며 “내·외부 평을 들어보면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했다.

장현국 대표는 “그간 저작권 침해 등으로 고생하면서 노력한 성과들이 올해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사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위메이드

하나둘씩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몇년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미르4로 불명예를 이겨내겠다”고 강조했다.

위메이드는 ‘미르’ IP를 두고 중국 게임사들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장 대표는 이번 지스타 메인스폰서로 참가한 것을 두고 “게임은 원래 온라인 속성을 갖고 있어 지스타의 오프라인 행사로 유저들과 대면하는 행사가 중요했다”며 “그럼에도 이런 시대를 맞아 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접목하며 앞으로 나아가길 고민하는 계기와 함께 좋은 출발점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날 장 대표는 블록체인의 게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스

티븐 스피어버그가 감독한 ‘레디 플레이어 원’과 같은 게임이 일상화 된 현실에 대비할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영화 ‘레디플레이어원’의 환경이 현실에 실현될 때 제대로 된 플랫폼을 갖고 있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혀 다른 차원에서 게임의 재미를 만드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 불확정성은 있지만 결국 언젠가는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단기간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플랫폼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메이드는 지난달 블록체인 전문 사회사 위메이드트리가 개발한 암호화폐 위믹스 토큰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을 통해 상장했다. 위믹스 토큰은 위메이드트리가 자체 개발한 ‘위믹스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유틸리티 토큰이다. 이용자들은 위믹스에서 서비스되는 게임의 플레이로 사용하고 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자산의 거래, 교환, 전송도 할 수 있다.

이후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통해 글로벌에서 서비스를 앞두고 있는 신작 게임 4종을 공개한 바 있다.

아울러 중국의 관화와 관련해서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식 일정이 뒤섞였지만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김나인 기자 silkni@

>> 1면 ‘44개 대표 게임사...’서 계속

다만, 개막식 온라인 방송을 위한 스태프들의 움직임이 분주했다. 이날 개막식에서 만난 강신철 지스타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지스타 방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라며 “4일간 참가사 발표 등을 라이브로 중계할 예정이고, 온라인에서 24시간 비즈니스 화상 미팅도 준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부산시는 게임융복합 타운 설립, 게임 펀드 조성 등도 약속했다. 개막식에서 박성훈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2025년까지 게임 관련 모든 콘텐츠 융복합 되는 융복합타운을 마련하고 게임 집중 투자 관련 펀드 1000억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개막식에는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참석한 50여명의 온라인 참석자들이 인사를 건네 눈길을 끌었다. ‘지스타TV’로 중계한 개막식 동시 최대 접속자는 약 4000여명이다.

지스타조직위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도전하는 ‘지스타TV’ 라이브는 트위치 라이브 방송 기준 생방송 시청자 수 150만명, 고유 시청자 수 60만명, 시청 9만5000시간을 돌파하며 온라인 기록을 수립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몰리던 지스타 관람객들이 장소, 시간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편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게 된 셈이다.

강신철 위원장은 “올해는 구체적인 수치를 목표로 하는 건 쉽지 않다”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의미한 시청자들이



지스타2020이 개최된 부산 벡스코 전경. /김나인 기자

지속적으로 시청하도록 해 채널을 유지하고 참가사들이 기대했던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스타2020 콘텐츠 파트너(BTC) 참가사는 위메이드, 넥슨, 크래프톤, 네오위즈,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 등 43개사 및 부산 인디커넥트 페스티벌 쇼케이스 44개사다. 참가사들의 신작 발표 및 이벤트는 ‘지스타TV’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제공된다.

BTB는 어느 때보다 해외 참가가 많아졌다. 라이브 비즈매칭 참가사는 총 45개국, 526개사다. 해외 기업은 닌텐도, 구글, 페이스북, 화웨이 등이 자리를 채웠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지스타 주관 e스포츠 대회 ‘지스타컵’과 무료로 중계하는 게임 컨퍼런스 ‘G-CON’도 눈여겨 볼 만한 행사다.

한편, 이번 지스타는 오는 22일까지 나흘간 온라인을 중심으로 열린다. 오프라인 현장에서 진행되는 이벤트는 모두 ‘지스타TV’에서 만나볼 수 있다.

/김나인 기자